

“광주 남자양궁 중흥 위해 쏠 것...소속팀 빨리 창단됐으면”



광주 남자 양궁 25년만의 국가대표 이승윤

“빨리 소속팀이 창단돼 안정된 여건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만난 남자 양궁 국가대표 이승윤(25)은 “광주 남자 양궁 실업팀 창단 소식에 새로운 도전 기회라 여겨 광주행을 선택했다”며 “광주에서 올림픽 금메달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윤은 지난달 29일 끝난 2021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을 5위로 통과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개인적으로 리우올림픽에 이어 도쿄올림픽까지 2회 연속 올림픽 도전 기회를 이었다. 광주 양궁은 25년만에 남자 양궁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한 셈이다.

이승윤은 1998년 한남투자신탁 양궁팀 해체를 계기로 사실상 집체기에 들어선 광주양궁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현재 리커브 부문 세계랭킹 1위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지난해 선수 구성까지 마친 남자 실업팀 창단이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승윤은 현재 김승운, 임지완, 이건희와 함께 광주시양궁협회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중학교 때 광주 소년체전서 첫 메달 새로운 도전 기회 여겨 광주행 선택 고3 때 태극마크...세계랭킹 1위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따고 싶어”

이승윤은 “광주 남자 양궁 중흥이라는 목표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했다”며 “선수생활을 하면서 맺은 광주와의 소중한 인연도 한몫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 1학년때 광주 서향순양궁장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첫 전국대회 메달을 땀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개인·단체·혼성전 3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광주에 등지를 튼 이승윤은 올해 군입대를 대신해 재능기부를 통한 대체 복무와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팀 동료들과 광주시양궁협회 지도자들의 신뢰와 믿음 속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광주 소속으

로 첫 대표선발전에 나서 긴장도 됐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좋은 성적을 거둬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승윤은 6일부터 열리는 올해 마지막 대회인 제22회 한국실업연맹실내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그는 “현재 소속팀이 없어 숙소도 없이 힘들게 훈련하는 동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마음을 다잡고, 지난해에 이어 개인전 타이틀을 꼭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고등학교 3학년 때 태극마크를 단 이승윤은 2018년 한차레만 빼고 부동의 국가대표이자 한국 남자양궁 주역으로 활약했다.

타고난 집중력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올림픽라운드 방식에 최적화했다는 이승윤의 꿈은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1995년 장용호 이후 25년 만에 광주 남자양궁에 태극마크를 선물하는 것이다. 나아가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꼭 이루고 싶다는 각오다

다음달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촌을 앞둔 이승윤은 “광주는 나에게 제2의 고향이다. 광주가 선물해 준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 광주 남자양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0 K리그 주니어 B조 우승을 확정된 금호고가 최종전이 열린 광양송죽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스코틀랜드 축구 AI 중계 카메라의 촌극 심판 대머리를 공으로 착각해 계속 찍어

팬들에 불편과 즐거움 동시에 안겨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경기에서 인공지능(AI) 중계 카메라가 대머리 심판을 공으로 착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3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최근 열린 스코티시 챔피언십(2부 리그) 인버네스 칼레도니안 시슬과 에어 유나이티드 경기를 중계하던 카메라가 오작동해 팬들에게 불편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겼다.

경기가 열린 인버네스의 홈구장 칼레도니안 스타디움에는 지난달 초 공의 움직임을 스스로 따라가며 찍는 카메라가 새로 설치됐다.

인버네스 구단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카메라가 만든 영상은 그대로 TV 중계에도 활용됐다.

잘 작동하던 카메라는 에어와의 경기 선심을

‘대머리 심판’이 맡으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카메라는 공을 따라가다가도 심판이 달리기 시작하면 심판의 머리 쪽으로 ‘시선’을 자주 돌렸다.

손 쓸 도리가 없는 중계진은 연방 사과 코멘트를 해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리그가 진행된 탓에 TV 중계로만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인버네스와 에어 팬들은 관전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SNS에 “다음부터는 대머리 심판들에게 모자를 씌워라 한다”고 적는 등 초유의 상황을 즐기기도 했다.

데일리 메일은 “최근 인버네스뿐 아니라 여러 영세한 구단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팬을 고용하는 대신 AI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금호고, K리그 ‘주니어 U18’ 우승

남부권역 B조서 1위 왕중왕전 2연패 도전

프로축구 광주FC 유스팀 금호고가 K리그 ‘주니어 U18’ B조(남부권역) 우승을 차지했다.

금호고는 K리그 산하 유스팀이 경쟁한 ‘2020 K리그 주니어 U18’ B조에서 6승3무1패의 성적으로 1위 자리에 올랐다.

경남 진주고, 부산 개성고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던 금호고는 대구 현풍고전 5-2 승리 이후 6연승 행진을 달렸다. 또 전주 영성고전 1-1 무승부로

9경기 연속 무패를 이뤘다.

금호고는 광양제철고와 최종전에서 0-1로 지면서 무패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승점 21점을 기록하며 2위 영성고(승점 20점), 3위 포항제철고(승점 19)를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했다.

금호고는 대회 기간 19득점 7실점의 막강한 공격과 탄탄한 수비를 자랑했다. 임지성은 9골을 몰아넣으며 최다득점을 기록했다.

광주FC U-18 금호고 최수용 감독은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을 치르지 못해 걱정이 많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다가올 왕중왕전에서든 하

한 공격으로 2년 연속 우승컵을 거머쥐겠다”고 밝혔다.

중부권역인 A조에서는 서울 U18인 오산고가 8승 2무(승점 26점) ‘무패행진’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금호고는 분위기를 이어 2020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2연패에 도전한다.

금호고는 지난해 울산 현대고와의 결승에서 연장 승부 끝에 2-1 승리를 거두고,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대회는 오는 13일 경남 창원군 스포츠파크에서 개막해 24일까지 계속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구례서 전국여자천하장사 가린다

5~8일 개최...대학장사씨름도

‘제12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가 5일부터 8일까지 구례군 구례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구례군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부 개인전(1·2부)과 여자 천하장사전, 대학부 개인전·단체전이 치러지고 총 25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5일 대학부 개인전 예선을 시작으로 대학부 개인전 결승과 단체전, 여자부 1·2부 개인전, 여자 천하장사 경기가 차례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는 무관중으로 개최된다.

선수와 감독, 심판 등 경기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기장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 명단과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경기는 대한씨름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6일 대학부 개인전·단체전 경기부터 8일 열리는 여자 천하장사 결승까지는 MBC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다.

/구례=이진석 기자 lit@kwangju.co.kr

뿔카 넘은 뒤플랑티스 세계육상연맹 ‘올해의 선수’ 후보에

‘인간새’ 세르게이 뿔카(57·우크라이나)를 넘어선 남자 장대높이뛰기 ‘신성’ 아르망 뒤플랑티스(21·스웨덴·사진)가 2020년 세계육상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 남자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육상연맹은 3일(한국시간) 올해의 선수 남자부 후보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뒤플랑티스는 9월 18일 이탈리아 로마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장대높이뛰기 결선에서 6m 15를 넘었다.

뿔카가 1994년에 작성한 종전 기록 6m 14를 1cm 뛰어넘은 세계 신기록이었다.

‘인간새’로 불린 뿔카는 뒤플랑티스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남자 장대높이뛰기 실외경기 세계 1~8위 기록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뒤플랑티스가 26년 만에 세계 기록을 바꿔놓으며 뿔카의 기록은 2위로 밀렸다.

뒤플랑티스는 7살 때 이미 3m 86을 뛰어 ‘장대높이뛰기 신동’이라고 불린 뒤플랑티스는 2018년 유럽육상선수권대회에서 주니어(20세 이하) 세계



기록인 6m 05를 넘으며 우승, ‘신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올해 2월 9일 세계육상연맹 인도어 투어미팅에서는 6m 17을 기록, 2014년 르노 라발레니(프랑스)가 작성한 종전 실내 종목 세계기록 6m 16을 1cm 뛰어넘었다. 뒤플랑티스는 2월 16일 실내경기에서 6m 18을 뛰어, 또 한 번 인도어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